

'농공단지 조성' 막은 법령, 지자체가 풀었다

묘량 농공단지 조성 산림보호법 시행령 막혀 차질 영광군, 규제 혁신 건의·설득...산림청 최종 수용

산림보호구역에 막혀 첫 삽도 뜨지 못했던 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지자체의 끈질긴 노력으로 해결됐다. 불합리한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내 조만간 농공단지 착공에 들어간다.
19일 영광군에 따르면 묘량면 농공단지 조성 과

정에서 지난해 3월 '테마규제 혁신 건의 과제'로 행정안전부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확대' 건의안을 제출했다.
당시 영광군은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지정계획까지 마쳤지만 조성 부지 중 일부만이 산

림보호구역으로 편입돼 있어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됐다.
산림보호법상 국가산단이나 일반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지만 농공단지는 예외였다.
묘량 농공단지는 부지 면적이 21만4876㎡(6만5000평)에 달해 임야를 포함하지 않고서는 조성할 수 없고 대체부지 선정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가로 막힌 영광군은 포기하지 않고 테마규제 혁신 건의 과제 제출 등 노력을 통해 산림청으로부터 건의안 수용 의견을 이끌어냈다.
산림청은 영광군이 건의안 내용을 토대로 시행령 개정 검토에 들어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절차를 밟은 뒤 지난달 4일 개정안을 시행했다.
행정안전부도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에 영광군

의 노력으로 결실을 본 '농공단지 조성시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포함해 수법사례로 발표했다.
산림보호구역 해제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려는 전국의 지자체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앞으로도 군민 생활과 사업 추진 과정 곳곳에서 장애가 되는 과도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군민 300명이 물으면 해남군이 답한다

군민 소통·협력 강화 온라인 군민청원제 시행

해남군은 군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군민청원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군민청원제는 해남군 홈페이지 '열린군수실'이나 해남소통넷 '소통군민'을 통해 해남군민이라면 누구나 군정 관련 이슈·정책 건의사항 등 청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다. 국민 20만명이 동의하면 답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비슷한 제도로, 휴대전화

로 본인 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접수된 청원에 대해 30일간 300명 이상이 공감할 경우 해남군은 20일 이내 공식 답변을 한다.
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식적인 답변 없이 자체 종결 처리된다.
청원은 주요 정책이나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주로 공익을 위해 제기되는 사항으로 민원인이 사익을 목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과 차이가 있다.
3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개인적인 민원이나 즉각적인 답변을 원하는 경우는 군민

청원이 아닌 '군민과의 대화'방을 이용할 수 있다.
명원관 해남군수는 "군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군민이 정책의 중심이 되는 온라인 군민청원제를 통해 군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은 군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군민 전용 앱 '해남소통넷'을 개발해 군정정보를 군민과 공유하고 있다. 또 현장에서 의견을 듣는 '현장특목', '군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소통행정을 펴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군이 오는 9월10일까지 '전국 캐릭터 캘리그래피 공모전'을 연다. 해남 공룡박물관 전경.

해남공룡박물관, 전국 캐릭터 캘리그래피 공모전

9월 10일까지 접수

해남군이 '제1회 전국 캐릭터 캘리그래피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모전은 해남과 공룡을 주제로 한 독창적인 캐릭터와 그에 맞는 캘리그래피를 함께 평가한다.
캐릭터는 일러스트, 그래픽, 드로잉, 손 그림, 스

캐지 등으로 표현하고 캘리그래피는 타이틀, 카피, 명대사 등을 구성하면 된다.
1인당 응모 가능 작품은 3매이며 작 품규격은 8절지 이상의 종이 재질에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다만, 캘리그래피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누어 총 20명의 입상자에게는 해남군수상과 함께 5만~30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준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9월10일까지 해남공룡박물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9월22일 입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공룡박물관을 연상할 수 있는 대중적이며 친밀한 캐릭터 디자인을 발굴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세월호 고하도 거치 목포시민에 묻는다

시, 22일까지 여론조사

목포시가 목포신항에 있는 세월호 선체를 고하도에 거치하는 방안을 놓고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19일 목포시에 따르면 세월호 선체 고하도 거치를 묻는 설문조사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목포시 인구의 5%에 해당하는 1만1000명이다. 조사 내용은 고하도 거치 찬반과 그 이유, 활용방안 등이다.
세월호 거치 후보지는 목포와 진도, 안산, 제주, 인천 등 5곳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목포신항 배후부지인 고하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인근이 가장 유력한 장소로 전해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 <광주일보 자료사진>

졌다.
목포시는 시민 여론조사와 시의회 의견수렴 결과를 오는 24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목포=문병선 기자 서부취재본부장 moon@

진도군 조도면, 찾아가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진도군 조도면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 조도면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조도면사무소 찾아가는 복지팀과 진도노인복지관, 봉사자 등 20여명은 최근 조도면 동구마을 소외 계층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불 빨래와 목욕, 집 청소, 방역 등을 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선풍기를 전달했다.

조도면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역 소독, 침구류·이류 세탁, 이·미용, 집 안 청소, 방충망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조도면 관계자는 "청결하고 시원한 주거환경 조성 함께 저소득층 건강증진,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함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SGI서울보증 | AIG | 하나손해보험 | NH손해보험 | KOREAN | BNP PARIBAS CARDIF | CHUBB | Carrot